

# 따뜻하고 애정있는 손길로 감싸야

**교실** 뒤쪽의 작품게시판은 검고 흉측한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다.

“따르릉 — ”

일요일 오후, 나른함에 못이겨 낮잠을 즐기고 있을 때였다.

“김 × × 선생님 덕인가요?”

“맞는데요.”

“학교로 빨리 좀 나와주세요. ....”

재빨리 옷을 갈아 입고 학교로 발길을 재촉하는 동안에도 전화 내용이 컷가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혹시 선생님 반에 영아와 지수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애들이 교실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붙잡혔어요.”

‘기어코, 큰 일을 벌이고 말았구나.’

학교에서 하얗게 질린 표정의 교장선생님과 당직선생님을 따라 6학년 5반 교실로 향하였다. 건물의 가장 끝에 위치하고 있는 교실에 도착했을 때,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심각한 정도의 화재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기 전에 그곳을 순시하던 당직 선생님이 발견하여 소화했다고 한다.

영아와 지수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떨고만 있었다.

“선생님, 학교에 놓고 온 게 있어서요... 교실에 들어 갔다가...



김민희  
<은혜국교 교사>

성냥이 있어서... 잘못 했어요. 장난으로...”

웬지 이 아이들의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는 건 그동안의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

그해 3월은 유난히도 바쁜 달이었다.

정신 없이 치뤄진 결혼식, 신혼여행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 왔을 때 아이들은 반갑게 맞아 주었다. 말썽꾸러기 개구장이들과의 생활이 또 다시 시작된 것이다.

어느 날, 체육시간이 끝나고 교실로 들어 왔을 때, 학급 회장인 다영이가 울상을 지으며 다가왔다.

“선생님, 제 돈이 없어졌어요.”

“뭐라고? 차근차근 자세히 말해보렴.”

“체육시간 전에 지갑을 책상속에 넣어 두었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그 속에 삼천원이나

들어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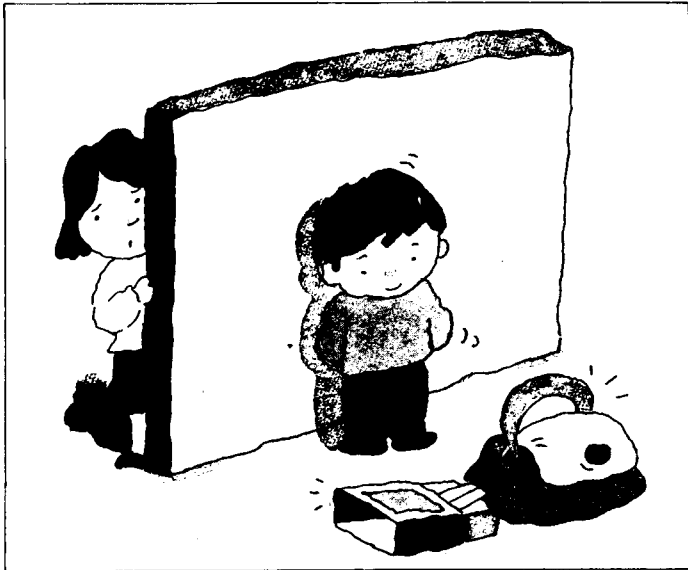
“그렇게 큰 돈을 잘 간수하지 못하다니...”

다영이를 야단치기는 했지만 이 ‘도난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까마득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일중 가장 까다롭고 신경쓰이는 일이 바로 도난사건이다.

우선은 아이들의 양심에 호소해 보기로 했다. 잠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니까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깨끗한 양심을 되찾자고..... 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의혹과 불안에 싸여있을 뿐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가방을 모두 뒤져야 하나?... 아이들 모두를 의심하는 일은 도저히 안돼.’

결국 아이들을 믿기로 하고 한 발짝 후퇴했으나, 지갑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음 한 구석이 항상 꺼림직한 채로 며칠을 지내다 일기장 검사로 사건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영아가 친구 생일선물로 커다란 곰인형을 선물했다는 대목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선물을 받은 아이에게 사실을 물어 보고, 다른 몇몇 아이들에게도 영아의 돈 씹씀이를 물어 보았다. 가끔 햄버거도 사주고, 머리핀 같은 것을 많이 사곤 했다는 대목에서 영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를 느꼈다. 영아는 등글고 흰 피부가 돋보이는 예쁜 아이였다. 그러나 외모와는 달리 성격이 까다롭고



성실하지 못한 면이 있어, 자주 야단을 맞는 아이였다. 공부보다는 예능방면에 소질이 있어 보인다고나 할까? 한편 영아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중에 하나로 '지수'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두 아이들에게 보충공부를 시킨다는 핑계로 며칠간을 방과후에 남기고 여러가지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밝고 순진한 외모와는 달리 계속되는 동문서답에 교사인 내가 헛갈릴 지경이었다. 결국 부모님을 면담해 보기로 했다.

영아 어머니는 벌써 무엇인가를 눈치챈 표정으로 학교로 달려왔다. 병치레가 잦은 엄마, 나이 어린 동생들, 엄한 아버지 속에서 영아의 도벽은 시작된 것이다. 100원, 200원이 천원, 이천원으로 발전(?)한 것은 시간이 별로 지나지 않아서였다. 집에서는 도벽이 있어도 설마 학교에서까지 그럴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영

아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반면 지수 어머니는 펄쩍 뛰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였다. 그동안 살펴 온 것을 차근차근 이야기하자, 영아의 꾀임에 빠진 거라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남은 일은 두 아이를 바르게 돌려 놓는 일이었다.

먼저 아이들에게 그동안 저지른 일을 사실대로 말하게 했다. 두 아이의 말은 시간마다, 장소마다 달라 내 아동관이 흔들릴 정도였다.

'세상에 이제 5학년인 아이들이 이렇게 거짓말에 능숙할 수 있는 건가? 이제껏 나는 아이들의 헛 껌데기만 봐왔나?.....'

하지만, 아이들보다 조금 더 질긴(?) 끈기로 드디어 그동안의 많은 도난사건이 영아와 지수에 의한 것임을 밝힐 수 있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일금 비밀인 사항이었다.

두번째로 정신교육을 시킬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보충공부에서 '선생님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방과후에 남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참다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학교때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등을 이야기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며 두 아이에 대한 미움이 안타까움으로, 애정으로 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나 이제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순간 방화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요즘 신문 지상에 간간히 떠오르는 방화사건을 보면 언제나 영아와 지수의 모습이 생각난다. 내가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고는 했어도, 가정이나 학교 생활에서 생긴 불만이나, 자기과시 욕구를 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었을까?

결국 방화를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가정이나 사회, 혹은 국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자기과시의 도피처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소외당하고 결손이 있는 이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애정어린 손길이 가득할 때 방화도, 도벽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도벽과 방화,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 두 사고에서 새삼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슴속에 앙금처럼 가라앉은 무섭고도 흉측한 흉터를 말이다. ☹